

구강 및 구인두암 절제에서 연구개 재건후 음성 및연하 기능의 평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조승호 · 김민식 · 박영학 · 박경호 · 양명재*

배경 및 목적 :

구개인두 폐쇄 부전으로 인한 언어 기능과 연하 기능의 장애는 연구개 종양의 절제 및 재건술 이후 발생할 수 있다. 술 후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재건술이 시행되고 그 결과가 개선되고 있다. 저자들은 구강 및 구인두암 수술 후 발생한 연구개 결손의 재건 방법을 분석하고 이해한 후 술 후 언어 및 연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0년 6월부터 2001년 9월까지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구강 및 구인두암으로 진단 받고, 원발병소의 절제시 연구개를 포함한 결손부를 재건하였던 2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손부의 크기에 따른 재건술과 이에 따른 술 후 기능을 평가하였다.

결 과 :

TNM병기(AJCC, 1997)에 따른 원발병소의 크기는 T1(2), T2(15), T3(1), T4(3)였고, 1/3이하로 부분절제된 경우가 10례였으며, 이 중 9례 전완부의 유리피판술을 통해 재건을 시도하였으며, 1례에서는 장골피부유리피판을 이용하여 재건하였다. 1/3이상 아전절제 및 전절제된 경우는 11례로 3례에서는 superior based pharyngeal flap과 같이 구개 피판의 국소피판을 사용하여 재건하였으며, 8례에서는 전완유리피판을 double folding하거나 전완유리피판과 superiorly based pharyngeal flap을 같이 이용하여 재건하였다. Modified Barium Swallow와 언어기능평가 결과 각각 70%와 83%의 환자에서 비교적 좋은 연하 및 언어기능을 보였다.

결 론 :

구강 및 구인두암의 수술 후 발생한 연구개의 결손을 전완유리피판과 구개 피판을 이용해 재건을 시도한 본 연구의 결과 술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전완유리피판을 이용한 재건술은 구강 및 구인두암의 광범위 절제후 남게 되는 연구개를 포함한 삼차원적인 구인두 결손부위의 재건술에 기능적인 면에서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